

특집
논문

한국 학생운동에서
대학생의 저항적 자살에 관한 연구

임미리 _한국학중앙연구원

논문요약

이 연구는 1975년 이후 대학생의 저항적 자살에 대한 통시적인 분석으로, 전체 30명 중 1975년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1980년에서 1997년 사이에 자살했다. 자살장소는 학교가, 자살방법은 분신이 가장 많았는데 이것은 대학생 자살이 개인적 결단을 넘어 공적 행위로 감행된 것임을 반증한다.

1980년 5·18 이후 정권 타도를 요구하는 자살이 나타났으며 자살의 주요 목적은 지배세력의 규탄에서 점차 저항세력 내부의 투쟁을 촉구하는 것으로 변해갔다. 6월 항쟁으로 지배세력에 대한 적대가 약화되고 추모의례를 통해 저항적 자살자가 저항운동의 도덕적 상징으로 간주되면서 연쇄적 자살이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1991년 '5월 투쟁'에서는 다른 직업군의 동조자살로까지 이어졌으나 다시 고립·분산적으로 바뀌어갔다. 1996년과 1997년 민족해방계 학생운동의 전국 조직인 한총련이 급속하게 쇠퇴한 뒤 대학생 자살도 자취를 감췄다.

대학생 자살은 5·18 죽음에 대한 애도로 시작하여 1987년 민주화 이후 적대전선이 약화되면서 저항세력의 투쟁을 촉구하는 연쇄적인 자살이 본격화됐고, 쫓겨를 촉구할 집단(학생운동)이 약화되면서 대학생의 저항적 자살도 소멸했다.

■ 주요어: 학생운동, 저항적 자살, 민족해방계열, 한총련, 용성총련, 5·18, 6월 항쟁

1. 들어가며

이 연구의 목적은 1975년 이후 대학생의 저항적 자살을 자살자와 자살행위의 일반적 특성과 추이, 그리고 정치적 목적의 변화를 통시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한국사회는 권위주의 통치 기간이 길었던 만큼이나 무수한 형태의 저항행위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서도 저항적 자살은 행위의 극단성 때문에 사회적으로 매우 큰 충격을 주었다. 여러 직업군 중에서도 대학생의 자살은 특히 그 충격과 영향이 강력했는데 그것은 학생이라는 신분이 갖는 특수성에 더해 지난 수십 년간 학생운동이 한국사회 저항운동의 선두에서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생 자살은 다양한 부문과 형태의 저항행위 가운데 전체 저항운동의 목표와 추구하는 이념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대학생의 저항적 자살이 갖는 이와 같은 성격을 전제로 지난 40여 년 사이 출현한 30건의 자살을 다음의 세 가지 방향에 초점을 맞춰 진행했다.

첫째, 통시적 분석의 전제로서 자살자 및 자살행위의 일반적 특성과 추이를 파악했다. 여기서는 성별, 연령, 출생지역, 자살지역, 자살장소, 자살방법의 전반적인 분포 및 추이와 함께 각 요소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둘째, 자살자 내면의 동기를 분석했다. 이를 위해 자살자가 남긴 구호와 유서, 그리고 자살의 구체적인 정황을 살폈으며, 자살배경과 목적을 지배세력과의 관계보다는 자살자의 내면적 동기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셋째, 학생운동의 변화 과정 속에 대학생 자살의 의미 변화를 분석했다. 이 연구가 통시적인 연구로서 갖는 가장 큰 장점은 대학생 자살의 전체적 성격뿐 아니라 그 변화를 동시에 파악할 수 있다는 데 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는 일차적으로 지배폭력의 변화에서 기인할 수 있지만, 지배폭력에 대응하는 저항운동, 더 나아가 학생운동과의 관계 속에서 고찰할 때 더욱 구체적으로 포착될 수 있다.

‘저항적 자살’은 뒤르캄(Émile Durkheim)이 『자살론』에서 정의한 네 가지 자살 중 ‘이타적 자살’에 해당하는데 ‘희생적 자살’, ‘정치적 자살’도 유사한 의미로 쓰인다. 희생적 자살과 이타적 자살이 소속집단에 대한 헌신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저항적 자살과 정치적 자살은 적대 집단과의 관계가 드러나는 용어이다. 그리고 이 모두는 ‘사적’ 또는 ‘개인적’에 반대되는 의미로서 ‘공적’인 자살이라 할 수 있다. 여러 용어 중 이 연구에서 ‘저항적 자살’을 사용하는 것은 폭력에 대한 반(反)폭력, 즉 지배세력의 억압에 대한 저항세력의 반작용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다.

연구 대상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이하 ‘추모연대’)¹⁾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했다. 추모연대는 전체 부문운동을 망라한 저항적 자살자들을 열사로 호명해 합동 추모하고 있다. 추모연대에는 1959년 조봉암을 시작으로 2012년까지 모두 441명이 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자연사와 병사, 타살, 의문사, 자살이 모두 포함돼 있다. 이 중 자살자는 1970년 전태일을 시작으로 모두 135명이며 대학생

1) www.yolsa.org

〈표 1〉 대학생 저항적 자살자의 추이(1975 ~ 현재)

순번	자살자	자살 연월일	나이	자살 방법	자살 장소	출생 지역	출신 대학	출신 고교	묘소
1	김상진	1975.04.11	27	할복	학교	서울	서울대	서울 보성고	이천 민주공원
2	김태훈	1981.05.27	23	투신	학교	광주	서울대	광주일고	경기광주 교묘지 천주
3	송광영	1985.09.17	28	분신	학교	광주	경원대	고졸 검정고시	모란공원 → 이천
4	김세진	1986.04.28	22	분신	학교	충북	서울대	서울 경북고	판교 공원묘지 → 이천
5	이재호	1986.04.28	23	분신	학교	광주	서울대	광주 송원고	망월동
6	이동수	1986.05.20	25	분신	학교	서울	서울대	서울 경기고	X
7	박혜정	1986.05.21	22	투신	광장	서울	서울대	서울 신광여고	X
8	진성일	1986.11.05	23	분신	학교	부산	부산산업대	부산 동래고	X
9	박선영	1987.02.20	22	목매	개인	전남	서울고대	광주 전남여고	망월동
10	장재완	1987.03.27	23	미상	광장	경남	부산대	부산 동인고	X
11	박태영	1987.12.09	21	분신	학교	전남	목포대	목포 덕인고	망월동
12	곽현정	1988.04.01	23	미상	개인	전남	한신대	서울 풍문여고	이천 민주공원
13	조성만	1988.05.15	25	투신	광장	전북	서울대	전주 해성고	망월동
14	최덕수	1988.05.18	22	분신	학교	전북	단국대	정읍 배영고	망월동
15	박래전	1988.06.04	26	분신	학교	경기	숭실대	화성 송산고	모란공원
16	양영진	1988.10.01	22	투신	학교	경남	부산대	부산 동래고	망월동
17	남태현	1989.04.07	23	분신	학교	충남	서울고대	천안 복일고	이천 민주공원
18	최응현	1990.11.08	22	투신	학교	경북	한양대	서울 세종고	모란공원

19	박승희	1991.04.29	21	분신	학교	전북	전남대	목포 정명여고	망월동
20	김영균	1991.05.01	21	분신	학교	서울	안동대	서울 대원고	안동대 내 가묘
21	천세용	1991.05.03	21	분신	학교	서울	경원대	서울 동북고	모란 → 이천
22	손석용	1991.08.18	22	분신	학교	경북	대구대	대구 대륜고	이천 민주공원
23	이경동	1993.09.08	25	분신	학교	전남	광주교대	전남 순천고	망월동
24	한상용	1993.11.01	24	분신	학교	전남	광주교대	광주일고	망월동
25	장현구	1995.12.04	27	분신	광장	서울	경원대	서울 대원고	모란공원
26	진철원	1996.04.06	21	분신	학교	서울	경원대	서울 대원고	모란공원
27	황해인	1996.04.16	21	분신	학교	강원	성균관대	속초여고	고성 선산
28	오영권	1996.04.19	21	분신	학교	전남	여수수산대	여수고	여수 시립묘지
29	이상희	1996.09.18	28	투신	광장	강원	경원대		이천 민주공원
30	한상근	1997.02.01	27	분신	학교	전북	용인대	김제 금산상고	모란공원

주: "자살연월일"은 사망이 아니라 자살 기도 시점이며, 여러 번 시도한 끝에 자살했으면 마지막 시도 일이다. "묘역"에서 "망월동"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5·18 구묘역, "모란공원"은 경기도 마석에 소재한 묘역, "이천 민주공원"은 경기도 이천에 소재한 민주화운동기념공원을 말한다. "모란 → 이천"은 모란공원에 안장됐다가 이천으로 이장한 경우로 이천 민주공원은 2016년 5월 정식 개장했다.

은 30명이다.²⁾ 한편 1975년을 시기(始期)로 하는 이유는 대학생 가운데

2) 2016년 3월 1일 기준. 김의기(1980/05/30), 고정희(1988/05/13), 박동학(1996/05/06)

최초로 열사로 호명된 경우가 1975년 4월 11일 할복자살한 김상진이기 때문이다.

2. 일반적 특성과 추이

〈표 1〉은 1975년 이후 대학생 저항적 자살자의 개인적 특성과 자살 상황에 대한 추이이다. 1975년 (1) 김상진을 시작으로 1997년까지 30건의 저항적 자살이 있었으며 김상진 이후 1980년까지는 한 건도 출현하지 않았다. 또 특정 시기에 자살자가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1986년, 1988년, 1991년, 1996년, 네 차례에 걸쳐 한 달이 안 되는 기간 동안 3~4명이 집중적으로 자살했다.

묘소의 경우 (2) 김태훈, (6) 이동수, (7) 박혜정, (8) 진성일, (10) 장재완, (17) 남태현, (27) 황혜인, (28) 오영권 등 8명을 제외한 22명이 모두 망월동과 마석 모란공원, 그리고 이천 민주공원 등 대표적인 민주화운동 열사 묘역에 안장돼 있다.

(10) 장재완, (16) 양영진, (22) 손석용은 군인 신분으로 자살했으나 학생운동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대학생에 포함시켰다. 출신 대학교는 서울대가 7명으로 가장 많으며 고등학교는 서울 대원고가 3명

은 한때 자살로 알려지기도 했으나 타살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자살자 수치에서 제외했다.

으로 가장 많고, 광주일고가 2명으로 그다음이다. 그밖에 (29) 이상희는 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1998년 12월 7일 고문후유증 끝에 자살한 이길상(경희대 79학번)과 남매 사이다. 성별은 (7) 박혜정, (9) 박선영, (12) 곽현정, (19) 박승희, (27) 황혜인, (29) 이상희 6명의 여성을 제외한 나머지 24명이 남성이다.

자살방법 중에는 분신이 20명으로 66.7%에 달했는데 1986년, 1991년, 1996년이 3~4명이다. 다음으로는 투신이 6명으로 많으며 할복과 목매는 각 1명씩이다. 할복은 (1) 김상진이고 목매는 (9) 박선영이다. 미상 2명은 (10) 장재완과 (12) 곽현정인데 자살방법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은 자살이 고립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자살방법을 목매이나 음독으로 추정할 수 있다. 분신과 투신, 할복은 공개적인 성격이 강하고 목매는 고립적인 성격이 강하다.

자살장소는 ‘학교’가 76.7%인 23명으로 가장 많으며 ‘개인’과 ‘광장’이 각각 2명과 5명인 6.7%와 16.7%이다. ‘학교’는 대학생들의 생활공간에 해당하며 ‘개인’은 고립된 공간, ‘광장’은 다수에게 개방된 공간을 의미한다. 개인에 해당하는 (9) 박선영과 (12) 곽현정의 자살장소는 둘다 자택이다. 광장에 해당하는 사람은 (7) 박혜정(한강), (10) 장재완(야산), (13) 조성만(명동성당), (25) 장현구(송파사거리), (29) 이상희(병원)이다. 이 중 박혜정과 장재완은 인적이 드문 장소와 시간을 택했고 이상희도 장재완과 조성만에 비해서는 개방성이 떨어지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개인 공간에서 자살한 박선영·곽현정과 공개된 공간이더라도 상대적으로 개방성이 덜한 야산에서 자살한 장재완은 모두 자살방법도 고립적이었다

는 데서 자살방법과 장소의 성격이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자살방법과 자살장소 모두 공개적인 성격이 강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는 것은 자살이 개인적 차원을 넘어 공적인 배경과 목적으로 감행됐음을 말해준다. 공개적인 자살방법 중에서도 ‘분신’이 많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분신은 자살과정의 고통이 극심한 만큼 사회적 충격이 매우 크고 이에 따라 자살의 목적 또한 더욱 강력하게 드러날 수 있다. 이와 함께 1970년의 전태일 분신이 1980년대에 저항행위의 상징으로 소환되면서 저항적 자살의 방법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대학생은 아니지만 5·18 이후 첫 번째 저항적 자살자인 김종태는 전태일추모회 활동을 했고 1986년 분신자살한 구로공단 노동자 박영진은 “내가 전태일 선배가 다하지 못한 일을 하려 했는데……”(월간말 1986, 67)라며 자신의 분신이 전태일을 계승하는 일임을 강조했다.

3. 자살상황과 소통의 방향

〈표 2〉는 전체를 5개 시기로 구분하고 자살상황 및 자살메시지를 정리한 것이다. 자살상황에는 자살메시지나 사건 당시 신문보도 등을 통해 자살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사건만을 포함시켰는데 자살에 영향을 미친 학내외 정치상황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특수사정도 포함돼 있다. 음영 표시된 아홉 명은 자살 당시 구체적인 학내투쟁이 전개되고 있지 않던 경우이고 나머지는 모두 구체적인 학내투쟁

〈표 2〉 자살상황 및 자살메시지

시기 구분	순번	자살자	자살 연월일	자살상황	자살메시지 : 구호, 유서 등
유신	1	김상진	1975. 04.11	학원자유화 성토 대회 동료학생 구속	[양선선언문] 유신헌법의 비민주적 허위성을 고발한다. [대통령께 드리는 공개장] 진정한 민주주의 풍토 위해 송고한 결단해달라. (서울대 민주열사 추모사업위원회 1984, 22-30)
	2	김태훈	1981. 05.27	5.18 침묵시위 광주학살	'전두환 물러가라' 3회
1기	3	송광영	1985. 09.17	학원안정법반대 투쟁 광주학살	광주학살 책임지고 전두환은 물러가라, 학원안정법 철폐하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6, 260)
	4	김세진	1986. 04.28	전방입소반대 투쟁	반전반핵 양키고흠
2기	5	이재호	1986. 04.28	전방입소반대 투쟁	반전반핵 양키고흠
	6	이동수	1986. 05.20	오월제, 문익환 연설 중, 광주학살, 김세진·이재호 분신	폭력경찰 물러가라, 미제국주의 물러가라, 어용교수 물러가라. 파쇼의 선봉 전두환을 처단하자, 최저임금제 보장하라, 광주항쟁 되살리라, 민중은 우매하지만 결코 죽지 않는다, 역사만이 나의 몸부림을 심판해줄 것. (K00858302)
	7	박해정	1986. 05.21	이동수 등 자살	이 땅의 불의와 억눌림을 방관하는 삶. 부끄럽게 죽을 것...자살로 도피해버린다고 욕하라. 욕하고 잊어달라. (대학신문 2009/10/14)
2기	8	진성일	1986. 11.05	건대사건	[건국대 농성사건에 즈음하여] 우리 학우들이 용공 공산혁명분자로 몰리고 있다... 군부독재 타도, 미제국주의 축출 [산대학우에게] 대동제나 하면서 희열에 빠져 있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앞장서서 나갑시다. (K00035733)
	9	박선영	1987. 02.20	박종철 사망, 건대 사건, 학원사찰	[일기] 내가 무너지는데 동료가 무너져내린다고 욕하기 없기..... 미땅히 행해야 할 것들에 대한 나의 외면이, 자신에 대한 분노. (K00863449)

	10	장재완	1987. 03,27	문건 분실 후, 군복무 중	본인의 중대한 과오로 인해 조직을 보위하고자 ... 나의 죽음이 우리 혁명과 조국통일을 조금이라도 앞당기는 계기가 된다면. (K00077586)
	11	박태영	1987. 12,09	대선 전, 42일 간 단독시위	시위 중: 제도교육 철폐, 민주교육 실시, 교련교육 철폐 분신직후: 오 자유화여, 거국중립내각 쟁취하자. (K00861974)
	12	곽현정	1988. 04,01	고문 후유증	
3기	13	조성만	1988. 05,15	남북공동올림픽 개최투쟁	양심수 석방, 조국통일 가로막는 미국놈들 몰아내 자, 공동올림픽 쟁취, 척박한 땅, 한반도에서 태어 나 인간을 사랑하고자 했던 한 인간 ... (K00854917)
	14	최덕수	1988. 05,18	5.18 8주기 (대동제)	오늘이 5·18 기념일인데 축제분위기에 빠질 수 있 느냐 군사파쇼 끝장내고 민주민중공화국 건설하자, 분단올림픽 거부하고 공동올림픽 개최하자. (한겨 레 1988/05/19)
	15	박래전	1988. 06,04	5.18 8주기	광주는 살아있다, 청년학도여 역사가 부른다, 군사 파쇼 타도하자. 백만 학도 일치단결 군사파쇼 타도 하자, 잊지 말자 광주를 처단하자 학살원흉. (K00529646, 8)
	16	양영진	1988. 10,01	8·15남북청년학 생회담투쟁 방위병 근무 중	인간자유성 말살하는 군대조직 해체하라, 조국통일 가로막는 미국놈들 물러가라. (K00095228, 10)
	17	남태현	1989. 04,07	학원민주화투쟁 수업거부 실패	'변미출정가'와 '우리의 소원은 통일' 부른 뒤, 자주· 민주·통일을 위해 미제와 독재의 기슴을 찢러 총! (K00884186) 조국의 자주·민주·통일을 위해 교 대인이여 깨어나라. (한겨레 1989/04/09)
4기	18	최응현	1990. 11,08	출소 후 가정 형편으로 휴학	동지들이 투쟁할 때 나는 현재의 괴로움 속에서만 헤매 뿐.
	19	박승희	1991. 04,29	폭력살인 규탄대 회, 강경대 사망	노태우정권 타도하고 미국놈들 몰아내자! 2만 학 우 단결하라!" [유시]적들에 대한 증오와 불타는 적 개심으로 투쟁해야 하리(박승희열사기념사업회 2008, 43)

	20	김영균	1991.05.01	살인정권 규탄대회, 박승희 분신	노태우정권 타도, 공안통치 분쇄
	21	천세용	1991.05.03	노정권 퇴진 궐기대회 김영균 분신	6천 경원대 단결투쟁 노태우정권 타도하자, 강경대 살려내라 새로운 민중의 나라를 위해 노력합니다. (K00126625, 32)
	22	손석용	1991.08.18	범민족대회, 군복무 중	미국의 용병이 되어 동포의 가슴에 더 이상 총부리를 거눌 수 없었다.(K00533384)
	23	이경동	1993.09.08	교원임용고시 철폐투쟁	임용고시 철폐, 주한미군 철수, 기만적인 김영삼정권을 반대. (K00476732, 5)
	24	한상용	1993.11.01	교원임용고시 철폐투쟁	진정한 나라 발전의 근원은 교육개혁, 교원수 5년간 동결조치 철폐, 안정적 교원수급정책 마련. (한겨레 1993/11/11)
5기	25	장현구	1995.12.04	고문후유증	
	26	진철원	1996.04.06	장현구 분신 진상규명투쟁	
	27	황혜인	1996.04.16	노동,학생열사 선전투쟁 중	나의 죽음으로 현정권에 대한 대중의 의식이 변하기를 바랄뿐. (성공회대 민주자료관 DEMOS-P181)
	28	오영권	1996.04.19	4.19 집회 시위 중 실명, 노수석·황혜인 사망	김영삼정권 타도, 미제축출, 조국통일 만세. (K00476561, 11)
	29	이상희	1996.09.18	고문, 정신질환	
	30	한상근	1997.02.01	학원자주화투쟁 경희대 김형찬 분신기도	[유언] 운동을 열심히 해달라, '임을 위한 행진곡' 부름.

주: 자살메시지에서(K-)로 표시된 것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홈페이지(www.kdemo.or.kr) 'Open Archives'에서 인용한 자료번호와 페이지 번호이다.

음영 표시된 9명은 자살 당시 학내투쟁이 전개되지 않고 있던 경우이고, 짙은 음영으로 표시된 (8) 진성일과 (11) 박태영은 자살배경이 다른 7명과 차이가 있는 경우이다.

과정 속에 자살했다. 여기서는 이러한 두 가지 자살상황별로 자살상황의 특징과 자살메시지의 소통 방향을 살펴보았다.

1) 고립적 자살과 내면의 고백

〈표 2〉에 자살 당시 구체적인 학내투쟁이 전개되지 않고 있던 9명(음영 표시) 중 짙은 음영으로 표시된 (8) 진성일과 (11) 박태영을 제외한 7명은 자살배경에서 뚜렷한 공통점이 있다. 3명은 고문후유증 끝에 자살했으며 나머지 4명은 자책감이 주요 원인이었다. 자살메시지에서도 마찬가지로 공통점이 발견되었다. 7명 모두 구호를 남기지 않았고 고문후유증 끝에 자살한 3명은 구호와 유서를 비롯해 어떤 자살메시지도 남기지 않았다. 자살 직전 구호를 외치지 않았다는 데서 자살장소가 상대적으로 고립적이었음을 유추할 수 있는데 (18) 최웅현을 제외하고는 모두 학교가 아닌 곳에서 자살했다. 자살상황 또는 자살장소의 성격에 따라 이들 7명의 자살은 ‘고립적 자살’이라 할 수 있으며 자살메시지도 외부로 향하기보다는 자살자 내면을 고백하고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들을 자살상황으로 나눠 각각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고문후유증 끝에 자살한 3명은 (12) 곽현정, (25) 장현구, (29) 이상희이다. 한신대 신학과 학생 곽현정은 1986년 건대항쟁에 참여한 뒤 115일 만에 출소해 1988년 4월 1일 성지교회 2층 자택에서 자살했다. 그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구류를 산 일이 있었으며 자살 당시에는 휴학 중이었다.

경원대의 89학번인 장현구는 1992년 학내 집회를 주도해오다 학교 쪽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해 구속됐다. 이때 심한 구타와 고문을 받았고 이듬해 2월 16일 석방된 뒤부터 심한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다 결국 분신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장현구의 분신자살이 있는 뒤 경원대 학교당국과 학생들은 진상규명을 놓고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공방을 벌였다. 장현구를 고발한 교수들이 사퇴했으나 학생들은 학교당국의 사과를 요구하며 130일이 지나도록 장례를 치르지 않고 천막농성을 진행했다. 이에 학교당국은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학생회 간부 10여 명을 제적 등 중징계하고 7명을 형사고발하는 것으로 맞섰다(한겨레신문 1996/04/25).

경원대 88학번 이상희도 장현구와 마찬가지로 고문후유증으로 치료 받던 병원에서 투신자살했다. 이상희는 3학년 때인 1990년 11월 3일 경원대학교 내에서 용성총련이 주최한 ‘학생의 날과 보안사 안기부 분쇄 투쟁 결의대회’를 마치고 동료들과 함께 거리 시위 중 화염병 소지 혐의로 구속됐다. 동료들의 이름을 댈 것을 강요받으며 가혹행위와 고문을 당했고 100일 만에 석방됐을 땐 우울증 등의 정신장애를 앓고 있었다(추모연대). 이상희가 사망하고 1년 3개월이 지나 김대중 정권이 들어섰을 때인 1998년 2월 7일, 그의 오빠 이길상이 마찬가지로 고문후유증으로 투신자살했다.

민주화운동에 헌신하지 못하는 삶에 대한 자책감이 주요 원인이 되어 자살한 경우는 (7) 박혜정, (9) 박선영, (10) 장재완, (18) 최웅현이다. 박혜정은 서울대에서 김세진·이재호와 이동수가 잇달아 분신하고 난 다

음날인 1986년 5월 21일 한강에 투신해 자살했다. 박혜정은 같은 학교 4학년으로 나약한 자신을 자책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는데 당시 언론에는 보도되지 않았다.

전남여고 출신의 서울교대 학생 박선영은 1987 2월 7일 목을 매 자살했다. 교대 당국은 박선영의 자살을 애정 문제로 치부했지만 실제로는 학생운동에 대한 학교 당국의 탄압이 주요 원인이었다. 박선영이 목을 맨 창신동 자취방은 전태일 기념관이 내려다보이는 곳으로 전태일의 모친 이소선의 증언에 의하면 동료들과 함께 자주 기념관에 들렀다고 한다. 박선영이 입학한 1985년 서울교대 학장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 문공분과위원장을 지낸 정태수였는데 학교 당국에서 대놓고 학생들을 사찰하는 일이 많았다. 박선영은 사회과학서적을 읽다가 ROTC 교관에게 발각된 뒤부터 수시로 불러나가 취조를 받았다. 1986년 말 가두시위를 하다 잡혀 경찰서에서 훈방 조치된 선배가 초등 교사가 될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되는 모습을 목격하고 절망에 빠졌다고 한다. 박선영은 이즈음 자살을 결심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가 자살했을 때 학생증의 사진 자리에는 박종철의 사진이 대신 붙여져 있었다.

부산대생 장재완은 방위병으로 근무하던 중에 자신이 분실한 조직 관련 문건이 든 가방이 보안대에 넘겨진 사실을 알고는 조직 보위를 위해 1987년 3월 27일 자살했다. 보안대에 잡혀갔을 때 자신과 자신으로 인해 검거될 동료들에게 가해질 신체와 생명에 대한 위협을 우려했던 것이다. 장재완의 자살은 2월 17일 치안본부가 박종철의 고문치사를 공식적으로 인정한지 한 달 만의 일이었다. 이듬해 10월 6일에는 '5공화국 이

후 군대내 의문사 진상규명공동대책위원회가 군대 내 의문사 22명과 일반 의문사 12명을 발표(한겨레신문 1988/11/01)했는데 부산대 83학번으로 방위병 신분인 장재완에게는 바로 자신의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한양대생 최응현은 전방입소 반대 특위 부위원장 활동으로 구속됐다가 출소한 뒤 가정형편으로 휴학과 복학을 반복하던 중에 1990년 11월 8일 한양대 옥상에서 투신해 자살했다.

이상 7명은 동료 학생들로부터 떨어진 고립된 장소에서 구호 없이 자살했고 남겨진 유서에서도 지배세력에 대한 저항보다는 자신을 향한 자책이 두드러졌다. 최응현과 장현구를 제외한 5명의 경우 자살 당시 언론보도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은 이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최응현과 장현구의 자살이 다른 자살자와 달리 언론에 보도됐던 것은 자살방법이 분신이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당시 언론에서는 이들의 자살 원인을 각각 자책감과 우울증으로 보도했다(한겨레 1990/11/09, 동아일보 1995/12/15).

이들처럼 자살메시지에 저항적 목적보다 개인적 고민이 두드러지는 경우 저항적 자살 여부를 가늠하는 것은 쉽지 않다. 민주화운동의 결과로 고문당하거나 운동에 대한 고민 속에 자살했다는 점에서 저항적 자살로 판단할 수 있는가 하면 우울증 같은 병적 요소나 가정형편 등의 사정에 초점을 맞춰 개인적인 비관자살로 볼 수도 있다. 박혜정의 경우에는 자살 당시 서울대 학생들이 열사 호명 여부를 두고 토론한 결과 암묵적으로 호명하지 말자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천정환 2013, 96). 그러나 결과적으로 추모연대에서 열사로 호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한국 사회 저항운동 진영에서는 저항적 자살로 판단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학내투쟁과 연계된 것은 아니지만 진성일은 자살 직전 발생한 건국대 사건에 침묵하고 있는 학우들에게 경종을 울리고자 1986년 11월 5일 부산산업대 교정에서 ‘산대 학우에게’라는 유서를 뿌린 뒤 분신 자살했고, 목포대 박태영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42일 간의 단독시위 끝에 “거국중립내각 쟁취하자”라고 외친 뒤 자살했다. 두 명 모두 앞의 7명에 비해서는 개인의 특수한 사정보다 저항적 목적이 두드러지지만 학내투쟁 과정과는 별개로 자살했다는 데서 나머지 21명에 비해서는 자살의 고립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2) 지배세력 규탄에서 저항세력 결기로 자살목적 변화

〈표 2〉에서 학내 투쟁 과정 중에 자살한 21명에도 진성일과 박태영을 합한 23명의 경우, 구호나 유서 등을 통해 드러난 자살메시지가 자살자 내면이 아닌 외부에 대해 소통의 목적³⁾이 강력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같은 소통 방향은 다시 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지배세력을 향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저항세력, 즉 동료학생이나 피지배계층 전체로 향하는 경우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살메시지의 소통 방향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정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4) 김세진, (5) 이재호

3) 박형민은 『자살, 차악의 선택』(2010)에서 자살은 대체로 크든 작든 외부로 향한 소통의 목적을 갖는다는 이유에서 ‘소통적 자살’을 개념화했는데 대중투쟁 속의 자살은 고립적 자살에 비해 소통의 목적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다.

까지는 자살메시지의 소통 방향이 지배세력을 향하고 있으며 (6) 이동수를 거쳐 (8) 진성일부터는 저항세력에 호소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는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자살메시지의 소통 방향이 지배세력을 향하는 경우 중에서도 첫 번째 대학생 자살자인 김상진은 나머지와 성격이 다르다. 김상진이 지배세력의 일부인 대통령을 향해 ‘호소’ 또는 ‘촉구’하는 것이라면 나머지는 규탄이 주를 이뤘다. 김상진은 박정희 정권 시기의 유일한 저항적 자살자로 1975년 4월 11일 경찰이 같은 대학의 학생 2명을 구속한 것을 성토하는 집회에서 양심선언문을 낭독한 뒤 자살했다. 그가 남긴 ‘대통령에게 드리는 공개장’에는 “각하의 숭고한 결단 하나로 사회의 안녕을 가져오고 학원의 평화가 유지되며 …단결된 힘으로 뭉친 안보태세의 만전이 기해지리라 믿는 바입니다”(서울대열사기념사업회 1984, 29)라고 적혀 있다. 즉, 김상진의 자살메시지는 지배세력인 대통령을 향한 것으로 유신헌법에 대한 반대와 민주주의에 대한 염원이 담겨 있기는 하지만 박정희나 당시 정권을 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았다. 김상진이 할복한 시점은 4월 9일의 인혁당 ‘사법 살인’ 직후였지만 그 또한 자살의 배경과는 무관했다. 할복 직전 낭독한 양심선언문은 “유신헌법의 비민주적 허위성을 고발”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었지만 인혁당 사형에 대한 항의나 박정희 정권에 대한 직접적인 반대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1980년 5·18 이후 발생한 자살부터는 정권 타도의 메시지가 분명해졌다. 김태훈은 “전두환 물러가라”를 3회 연속적으로 외친 뒤 투신했고 송광영은 “군부독재 물러가라”, 김세진·이재호는 개인적으로 준비한 구

호가 아니라 집회 전체의 구호였지만 몸에 불을 붙이기 전 “반전반핵 양키고홈”을 외쳤다.

1980년대 중반까지 자살 목적이 주로 5·18 죽음의 애도와 관련해 학살주범의 규탄에 있었다면 후반부터는 저항세력을 대상으로 한 투쟁의 촉구가 많아졌다. (6) 이동수부터는 메시지의 방향이 지배세력보다는 저항세력, 즉 ‘적’이 아니라 ‘아(我)’ 또는 ‘우리’로 향하고 있다. “파쇼의 선봉 전두환을 처단하자”는 이동수의 구호부터 그 뒤에 발생한 모든 자살의 구호가 “○○하자”는 식으로 호소 또는 촉구의 성격을 띠고 있다.

지배세력에 대한 규탄은 그 자체로 이미 저항세력의 투쟁을 촉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지만 1986년 5월 20일 이동수의 자살 이전까지는 간접적으로 암시되는 것에 그쳤다. 또 이동수는 “파쇼의 선봉 전두환을 처단하자”고 외쳤지만 대상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건대항쟁 직후 진성일의 자살부터는 투쟁을 촉구한 대상, 즉 자살메시지의 수신인이 대학생 집단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했으며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산대인이여! 여러분 우리 모두 앞장서서 나갑시다(진성일 유서 중).

백만학도 일치단결 군사파쇼 타도하자(박래전 유서 중).

6천 경원대 단결 투쟁 노태우정권 타도하자(천세용, 구호).

학우들이여, …제 뒤통까지 여러분이 투쟁하여 준다면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입니다(천세용 유서 중).

조국의 자주·민주·통일을 위해 교대인이여 깨어나라(남태현, 분신 직전 남긴 메모 글).

이 세상의 변혁을 위해 투쟁하기만을 난 지금 바랄 뿐이다. ... 이제 그 실
천을 동지들이 해주길(황혜인).

자살 목적과 메시지 수신인이 구체화된 것은 학생운동의 성장과 상대
적 침체를 이유로 들 수 있다. 우선 학생운동의 성장은 자살자에게 자
살 목적을 수용해줄 집단의 존재를 의미한다. 1982년과 1985년 각각 한
명(김태훈, 송광영)에 그쳤던 대학생 자살자가 1986년에는 김세진, 이재
호, 이동수, 박혜정, 그리고 진성일까지 5명으로 대거 늘어났다. 이 기
간 중 지배폭력에 명확한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거꾸로 저항
세력 측면에서는 유화국면 이후 학생운동이 빠른 속도로 대중화하는 시
기이다. 이것을 저항적 자살과 연결하면 학생운동의 성장으로 자살메시
지를 수신할 대상이 분명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이창언 2009, 164).⁴⁾
그러나 1986년의 앞의 네 명에서 보이지 않던 ‘투쟁 촉구’ 메시지가 진
성일에 와서 등장하게 된 것은 학생운동의 전반적인 성장 속에 부산산
업대의 상대적 침체 때문이다. 진성일 이후에도 소속 대학 또는 전체
학생운동의 침체를 배경으로 하여 투쟁을 촉구하는 자살들이 계속해 등
장했는데 유서에 나타난 구체적 사례는 다음과 같다.

오늘이 5·18 여덟 돌인디 학교 분위기가 왜 이런가, 광주항쟁의 뜻은 되

4) 이창언은 “인지·문화적 담론 형성을 촉진하는 연결망과 공간의 존재 또한 분신자
살의 빈도에 영향을 준다”라고 했다.

새겨야 되지 않겠냐(최덕수).

오늘의 우리는 비겁과 안일과 무감각의 늪에 빠져 있다. …들리지 않는가. 광주영령들의 울부짖음이. 들리지 않는가. 세진이 재호, 윤범, 성만, 덕수의 함성이(박래전).

우리와 같은 학우들이 쇠파이프에 맞아죽고 꽃다운 청춘을 불사르는 동안 우리는 과연 무엇을 했습니까(천세웅).

분노하라 외쳤지만 분노하는 학우는 보이지 않고, 투쟁하라 외쳤지만, 투쟁하는 학우는 보이지 않았다(황혜인).

이에 따라 1980년대 전반의 자살들이 5·18 죽음의 애도 과정에서 지배세력을 규탄하는 것이라면 진성일 이후 상당수의 자살은 학생운동의 상대적 또는 전반적 침체 속에 소속 공동체의 궤기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⁵⁾

4. 분산적 자살에서 연쇄적 자살로 양상 변화

박정희 정권 시기에 자살한 김상진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두환과 노태

5) 이창언은 “1980년대 분신자살이 시대와 이념을 선도하는 의미가 상대적으로 강했다면 1990년대는 급진적 이념으로부터 멀어지는 대중, 구조적 모순에도 불구하고 무기력한 일상, 그 일상으로의 후퇴를 막으려는 욕구의 표출이라는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이창언 2009, 168)고 했다.

우 정권 기간 중 자살했는데 여기서는 김상진을 제외한 29건의 자살을 <표 2>의 구분처럼 일정한 연속성을 보이는 다섯 개 시기로 나누어 각 시기별 자살의 특성과 내용을 살펴보았다.

첫 번째, 1980년 5·18 이후 정권 타도 구호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광주 학살에 대한 항의와 광주 영령에 대한 애도가 자살의 주요 원인이 되는 시기이다. (2) 김태훈과 (3) 송광영이 해당하며 두 건의 자살이 시거나 지역적 측면에서 서로 무관하게 분산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이 특징이다. 광주일고 출신의 서울대생 김태훈은 5·18에 항의해 일어난 첫 번째 대학생 자살자로 1981년 5월 27일 “전두환 물러가라”를 세 번 연속 외친 뒤 도서관 건물에서 투신했다. 1985년 9월 17일 분신자살한 경원대생 송광영은 서울 경신중학교를 졸업한 후 평화시장에서 재단사로 일하며 청계피복노조 활동을 한 검정고시 출신 대학생이었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6, 259). 송광영은 “군부독재 물러가라”, “학원안정법 철폐하라”, “학원 탄압 중지하라”는 구호를 연속적으로 외친 뒤 분신했으며 송광영의 분신 이후 한동안은 자살메시지에 5·18 광주가 등장하는 일은 없었다.

두 번째, 반미반제가 학생운동의 주요 이슈로 등장하면서 대학생들의 자살이 연쇄적인 모습을 보이는 시기이다. (4) 김세진, (5) 이재호, (6) 이동수, (7) 박혜정이 해당하며 이때를 시작으로 짧은 기간 동안 수 명의 대학생들이 연쇄적으로 자살하는 일이 수차례 발생했다. 김세진과 이재호가 분신한 1986년 4월 28일은 ‘반미지주화반파쇼민주화투쟁위원회(자민투)’와 서울대 총학생회가 공동으로 결성한 ‘전방입소훈련 전면

거부 및 한반도 미제 군사기지화 결사저지를 위한 특별위원회' 주도로 전방입소훈련 거부투쟁이 시작된 날이었다. 특별위원회의 공동부위원장인 이재호는 자연대 학생회장인 김세진과 함께 이날 집회를 이끌었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0, 257-258). 이들의 분신을 미리 준비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나 타살이나 사고사라고는 할 수 없다. 농성 중 경찰이 다가오자 김세진과 이재호는 온몸에 시너를 뿌리고 다가오지 말라고 했으나 경찰이 체포를 시도하면서 두 사람은 몸에 불을 붙였다.⁶⁾ 그 뒤 한 달이 채 안 된 5월 20일에는 같은 학교 이동수가 분신했다. 이동수가 몸에 불을 붙이고 학생회관 옥상에서 뛰어내릴 때 건너편에서는 민통령 의장인 문익환 목사가 연설하고 있었다. '49명 분신 대기설'을 비롯해 정권의 '분신 배후설'은 이때부터 유포되기 시작했다. 문익환은 이 일로 구속돼 1987년 6월 항쟁 이후에야 출옥했다(경향신문 1985/10/23). 한편 박혜정은 이동수의 분신 다음날 자살했다. 이들 네 명의 자살 이후 1988년 초까지는 앞서 고립적 성격이 강한 자살로 언급했던 (8)에서 (12)까지의 진성일, 박선영, 장재완, 박태영, 곽현정이 자살했다.

세 번째, 1960년 4월혁명 직후의 통일운동 뒤 28년 만에 처음으로 1988년 통일운동이 고조되는 과정에서 3명의 대학생이 잇달아 분신자살하는 시기이다. (13) 조성만, (14) 최덕수, (15) 박래전의 자살은 불과

6) 이즈음 서울대 민주화투쟁위원회(MT) 그룹을 중심으로 반파쇼투쟁을 강조하던 그룹은 자민투에 대응해 '민족민주투쟁위원회'(민민투)를 결성했는데 두 사람의 분신 이후 정부는 자민투와 민민투를 국가전복을 획책하는 용공좌익조직으로 규정, 대공 차원에서 수사력을 총동원 일제검거에 나서게 된다(경향신문 1986/05/05).

20일 사이에 일어났지만 자살 목적은 상반된다. 조성만이 통일운동의 가속화를 목적으로 했다면 최덕수와 박래전은 5·18 학살에 대한 규탄 목적이 강했다. 5월 15일 명동성당에서 조성만이 “양심수 석방하라, 조국통일 가로막는 미국놈들 몰아내자”고 외치며 투신한 뒤 5월 18일에는 단국대생 최덕수가 “광주항쟁진상규명, 국조권 발동”을 외치며 천안캠퍼스 시계탑 앞에서 분신했다. 최덕수가 망월동 묘역에 묻히고 나흘 뒤인 6월 4일 숭실대 학생 박래전이 “광주는 살아있다, 청년학도여 역사가 부른다. 군사파쇼 타도하자”고 외친 뒤 분신했다. 조성만이 NL 계열의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건설준비위원회(서총련) 소속이라면 박래전은 CA(제현의회) 계열의 서울지역대학생총연합건설준비위원회(서건주) 소속이었다. 통일운동이 고조되고 있었지만 그는 오히려 광주민중의 죽음을 되갚아야 할 때라고 생각했다. 박래전은 나흘 전 최덕수의 시신을 모교인 정읍의 배영고에서 광주 망월동 묘역까지 운반하는 운구차에 타고 있었다(한겨레신문 2012/02/19). 이후에는 (16) 양영진, (17) 남태현, (18) 최웅현이 자살했는데 앞의 둘은 반미의식이 두드러진 유서를 남겼고 최웅현은 유서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총학생회 반미소위 위원장을 지냈다(동아일보 1990/ 11/09)는 데서 세 명이 모두 조성만과 같은 계열임을 알 수 있다.

네 번째, 학생들의 자살에 이어 다른 직업군에서 동조자살이 일어나는 때로 1991년 ‘5월 투쟁’으로 불리는 시기이다. (19) 박승희, (20) 김영균, (21) 천세용이 해당하며 이후 1993년까지 일어난 일련의 자살들도 비슷한 이념적 기초를 보였다. ‘타살정국’, ‘치사정국’, ‘분신평정국’) 등

으로 불린 '5월 투쟁'은 대학생들의 잇단 자살로 충격을 주었지만 대학생들의 연쇄자살은 이전에도 있었다. 따라서 이 기간의 특징은 대학생의 연쇄자살보다는 다른 직업군의 동조자살이 잇달았다는 데 있다. 1991년에는 4월 29일 전남대 여학생 박승희와 5월 1일과 3일 안동대생 김영균과 경원대생 천세용이 분신하고 난 뒤 8일 김기철(사회운동가), 11일 윤용하(노동자), 18일 이정순(노동자), 차태권(노동자), 김철수(고교생), 22일 정상순(무직), 6명이 잇달아 분신자살했다.

자살자가 직전의 자살을 자신의 자살 이유로 표명한 것은 1991년이 유일하다. "폭력살인 만행 노태우 정권 타도하자"는 구호를 외치고 서강대에서 분신한 김기철은 이후 유서대필 의혹을 불리일키면서 지배세력이 '분신 배후설'로 5월 투쟁을 호도하는 데 이용됐다. 이에 따라 전남대에서 분신한 윤용하는 "누가 분신을 배후조종한단 말인가"(한겨레신문 1991/05/11)라며 김기철의 분신에 제기된 분신 배후설의 의혹을 부정했다. 전남 보성고 학생 김철수는 "박승희 분신 이후 죽음을 각오했다. 이제 전국의 고등학생들이 일어나 투쟁해야 한다"고 했으며(한국고등학생기독교운동 서울연맹 1991/06/01, 45) 광주 전일여객 버스기사 차태권은 "고등학생이 분신하는 마당에 우리가 살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한겨레신문 1991/05/19)고 했다. 또 연세대 앞 철길에서 분신한 이정순은 "국가와

7) 1991년 5월 투쟁 당시 일간신문들은 당시 정국에 대해 각기 다른 용어들을 사용했다. 「경향신문」은 '치사정국'과 '분신정국'을 함께 사용했으며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치사 정국', 「동아일보」는 '치사·분신정국', 1992년부터는 '분신정국'이란 표현을 쓰기 시작했다. 「한겨레신문」은 '타살정국'이라고 했다.

민족을 위해 자랑스러운 자녀에게 나를 바친다”고 했다. 3일 뒤인 22일 전남대 병원에서 분신한 정상순은 “승희와 철수 열사의 뒤를 이어 젊음을 태우렵니다”(한겨레신문 1991/05/23)라며 자신이 분신하는 이유가 앞서 분신한 박승희나 김철수에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5월 투쟁’이 죽음에 대한 공포와 계란 투척⁸⁾에 대한 분노로 마감된 뒤 8월 18일에는 휴가를 나온 육군 일병 (22) 손석용이 “미국의 용병이 되어 동포의 가슴에 더 이상 총부리를 겨눌 수 없었다”는 유서를 남기고 재학했던 대구대 옥상에서 분신했다(한겨레신문 1991/08/20). 그리고 다음해인 1992년까지 더 이상 대학생 자살은 발생하지 않았다가 1993년에 광주교대생 (23) 이경동과 (24) 한상용이 ‘교원임용고시 철폐’를 주장하며 두 달 간격으로 분신자살했다.

이 시기의 또 다른 특징은 ‘교육운동’과 관련이 크다는 것이다. 교원 임용고시 철폐를 요구한 이경동과 한상용은 교육운동이 직접적인 배경이었으며 박승희, 김영균, 천세용, 세 명은 모두 2학년생인 90학번으로 ‘고등학생 운동’(고운)을 경험한 세대였다. 정명여고 시절 학생회장에 출마한 경험이 있는 박승희는 3학년 시절 전교조 탄압에 대한 항의로 문과반에서 시험거부를 하고 있을 때 자신이 속한 이과반에서는 그대로 시험을 보자 “선생님들은 전교조에 가입해서 이렇게 탄압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시험만 치르고 지켜보고 있으면 되느냐”며 시험지를 찢어버

8) 한국의국어대 학생들이 교수로 재직했던 정원식 국무총리 서리에게 계란을 투척한 사건을 말한다.

리고 나갔다(박승희열사기념사업회 2008, 40). 김영균은 서울 대원고 재학 시절 ‘교육민주를 염원하는 학생 소모임 목마름’을 조직해 전교조 지원 활동을 했고(양돌규 2006, 118), 천세용의 경우 고교 시절의 개인적인 활동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가 다닌 서울 동북고는 1987년 12월 출범한 ‘서울지역 고등학생 연합’의 중심 학교 가운데 하나였다(오마이뉴스 2007/12/04).

한편 5월 투쟁 과정 속에 고교생 김철수가 분신자살한 것 이외에도 고등학생의 저항적 자살은 더 있었다. 정성묵(공주 한일고), 김수경(대구 경화여고), 심광보(대전 충남고)가 5월 투쟁 약 1년 전인 1990년 6월 4일과 5일, 그리고 9월 9일에 각각 자살했다. 이들은 전교조 지원활동과 관련한 탄압 등이 이유였고 자살 당시 ‘교육 민주화’를 요구했다.

다섯 번째, 김영삼 정권 중반의 신공안정국 이후 14개월 동안 6건의 자살이 분산적으로 일어난 시기이다. 이 중 세 건은 보름도 안 되는 기간에 일어났는데 (26) 진철원, (27) 황혜인, (28) 오영권이 해당하며 그 앞뒤로 (25) 장현구와 (29) 이상희, (30) 한상근이 자살했다. 장현구, 오영권, 이상희 3명은 물리적인 지배폭력의 직접적인 희생자였고 진철원, 황혜인, 한상근은 앞선 죽음 또는 폭력이 배경이었다.

1994년 7월 8일 북한의 김일성 주석 사망에 뒤이은 ‘조문논쟁’과 서강대 박홍 총장의 ‘주사파’ 발언으로 인해 소위 신공안정국이 조성됐다. 이때부터 국가보안법 구속자가 급증하기 시작해 1996년에는 구속자가 1961년 이래 최대 수치인 499명에 달했다. 1996년의 대량 구속은 8월 13일부터 20일까지 연세대에서 있는 한총련 출범식 사건의 영향도 컸지

만 과거 활동을 뒤늦게 문제 삼아 이미 해체된 조직의 회원들을 대량 구속했기 때문이었다(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2003, 49-52).

이 같은 상황에서 장현구가 고문후유증으로 분신자살했고 4개월 뒤인 1996년 4월 6일 같은 경원대생 진철원이 장현구의 명예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 투쟁 과정에서 분신했다. 진철원은 장현구의 대원고 후배이기도 했는데 5월 투쟁에서 분신자살한 안동대생 김영균도 대원고 출신이다.

4월 16일에는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물리학과 2학년생인 황혜인이 동아리연합회 선전부장을 맡고 있던 중 분신했고 4월 19일에는 여수 수산대생 오영권이 “김영삼 정권 타도! 미제 축출! 조국통일 만세!”라고 적힌 유서를 남기고 분신했다. 오영권은 약 1년 전인 1995년 6월 순천대 앞에서 한국통신 노조 탄압 규탄시위를 벌이다 왼쪽 눈에 돌멩이를 맞아 실명한 상태였다. 5개월 뒤인 9월 18일에는 경원대생 이상희가 고문후유증 끝에 자살했으며 다음 해 2월 1일 용인대 동아리연합회 회장 한상근은 ‘김형찬 고문수사 안기부책임자 처벌과 안기부법 날치기 무효화를 위한 대책위원회’⁹⁾에서 15일 동안 농성단으로 활동하고 난 직후 분신자살했다.

이상과 같이 1980년대 전반의 첫 번째 시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한 달

9) 1996년 말, 경희대 수원캠퍼스의 김형찬이 분신을 기도하는 일이 발생했다. 김형찬의 분신 기도는 12월 5일 연행된 뒤 경기지방경찰청 대공분실로 넘겨져 조사대 기중에 일어났다. 그는 피의자 대기실에 있던 석유난로의 석유를 끼얹어 3도 화상을 입었으나 생명은 구했다(한겨레신문 1996/12/07).

도 안 되는 기간에 서너 명의 대학생들이 잇달아 자살하는 일이 발생했다. 1기의 자살이 5·18 죽음에 대한 애도와 항쟁정신의 계승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연쇄성을 띤 일련의 자살들은 앞선 동료학생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과 함께 그 죽음이 표방한 정신을 계승하는 일이었다. 자살의 연쇄성은 학생운동에서 저항적 자살이 하나의 실천으로 간주됐음을 의미한다. 즉, 2기부터는 앞선 동료학생의 자살을 실천행위로 간주하면서 그러한 실천을 연장 또는 계승하기 위한 또 다른 실천이 자살로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이때 자살은 개인적 결단을 넘어 집합행동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자살이 실천행위로 간주돼 연쇄성을 띠게 되는 것은 추모의례의 정착과도 관련이 있다. 1983년 말 학원자율화 조치 이후 1984년 11월에 처음으로 전태일 추모제가 노학연대 속에 치러졌고 5·18 추모 또한 1985년 ‘광주학살 진상규명투쟁’을 거치면서 추모의례로 정례화됐다. 이것은 1980년 5·18 광주항쟁의 영향과 변혁운동의 대두 속에 전태일의 분신 자살이 다시 소환되면서 저항적 자살자가 운동의 도덕적 상징으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알튀세르가 이데올로기가 개인들을 주체로서 호명한다고 했듯이(알튀세르 1991) 분산적이고 개별적으로 발생했던 저항적 자살들은 추모의례 과정에서 열사로 호명되면서 비로소 전체 저항운동으로 통합되어 투쟁의 도덕적 상징이라는 위치를 획득하게 된 것이다.

〈표 3〉 학생열사의 출신 대학교

지역	인원	대학명	인원
서울권	12	서울대	6
		서울교대	2
		송실대	1
		한양대	1
경기권	8	경원대	5
		성균관대 수원	1
		용인대	1
		한신대	1
충청권	1	단국대 천안	1
영남권	4	대구대	1
		부산대	2
		부산산업대(경성대)	1
		안동대	1
호남권	5	광주교대	2
		목포대	1
		전남대	1
		여수수산대	1
합계	29	합계	29

주: (1)김상진은 포함하지 않았다.

5. 출신대학과 학생운동의 중심 이동

〈표 3〉은 김상진을 제외한 29명을 출신 대학과 지역으로 나눠본 것이다. 서울대가 6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성남에 소재한 경원대가 5명이다. 두 학교를 제외하고는 서울교대와 광주교대에서 2명씩이고 나머지는 모두 1명이다. 지역적으로는 서울대와 경원대의 영향으로

서울권과 경기권이 많고 영남권과 호남권은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는 전체 자살자들을 출신 대학 및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네 개의 시기로 나눈 뒤 그 특징과 내용을 살펴보았다.

첫 번째, 1980년에서 1987년까지로 (2) 김태훈에서 (11) 박태영까지 10명이 해당하는 시기이다. 이 중 김태훈, 김세진, 이재호, 이동수, 박혜정 5명이 서울대이고 송광영, 진성일, 박선영, 장재완, 박태영은 비서울대이다. 대학생들의 연쇄적 자살이 처음으로 시작되는 김세진부터는 서울대생 네 명이 연속적으로 자살한 뒤 다른 대학교 학생들이 그 뒤를 따르는 흐름이다. 출신 대학으로만 보면 이 시기 학생운동의 중심은 ‘서울대’라고 할 수 있다. 실제 이 시기는 1983년 말 학원자율화 조치의 영향으로 학생운동이 급속하게 대중화하면서 이념적으로도 분화하는 시기였고, 그러한 분화의 중심에 서울대가 있었다.

김세진·이재호의 분신은 부산미문화원 방화사건이 일어난 지 꼭 4년째 되는 날인 1986년 3월 18일 일어났다. “반전반핵 양키고홈”이 외쳐졌고 이후 예전에 볼 수 없었던 반미 구호가 학생운동 내 확산됐다. 이 즈음 서울대 학생운동 조직은 자민투(반미자주화반파쇼민주화투쟁위원회)와 민민투(반제반파쇼민족민주투쟁위원회)로 분화돼 있었다. 김세진·이재호는 자민투 계열이었고 이것은 나중에 민족해방(NL) 계열의 학생운동으로 발전했다. 서울대 외에는 부산대 장재완이 민족해방계로 보인다. 조직 관련 문건을 분실한 뒤 자살한 장재완의 유서에는 “민족해방과 조국통일의 위대한 과업을 달성키 위해 강고한 당 중앙 지도의 기치 아래 결집 ...”이라고 되어 있다. 또 진성일이 죽음으로써 항의한 ‘건대사건’은

민족해방계 학생운동 지도부인 '구국학생연맹'(구학련) 소속 대중조직인 '전국 반외세반독재 애국학생투쟁연합'(애학투련) 발대식에 벌어진 경찰의 대규모 진압작전으로 1,288명이 구속된 사건이었다. 진성일은 “내가 입만 병긋하면 동대는 박살난다”고 한 말에서 동아대 학생운동 조직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는 있지만 민민투와 자민투 가운데 정확히 어디 소속이었던지는 밝혀지지 않았다.(K00035733, 10) 박선영의 유서에서는 특별한 이념적 성향이 드러나지 않았으며 목포대 박태영의 경우도 민족해방계에서 주로 사용되는 '민족해방'이나 '조국통일' 등의 단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시기는 서울대를 중심으로 학생운동이 이념적으로 분화하지만 그때까지는 민족해방계가 지배적이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1988년에서 1990년까지로 (12) 광현정부터 (18) 최웅현까지 7명이 해당한다. 1988~1989년의 학생운동은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민족해방계가 확산되면서 CA(제헌의회) 계열 또는 PD(민중민주) 계열과 대립하던 시기이다. 서울대는 조성만 한 명이었으나 양영진을 제외하고는 모두 서울지역 또는 수도권 대학 소속이다. 이념적으로는 조성만과 양영진, 남태현, 최웅현이 민족해방계라 할 수 있으며 최덕수¹⁰⁾와 박래전은 CA(제헌의회) 계열에 속했다. 광현정은 고문후유증으로 인해

10) 최덕수가 단국대 천안캠퍼스 학생이기는 하지만 당시만 해도 서울 소재 대학의 지방 캠퍼스의 경우 특히 학생운동 측면에서 서울 캠퍼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을 감안하면 이 시기 학생운동의 중심은 '서울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자택에서 고립적으로 자살했기 때문에 이 시기 학생운동에 별다른 반향을 일으키지는 않았으나 건대사건 때 구속돼 고문을 받았다.

세 번째, 1991년 '5월 투쟁'부터 1993년까지로 (6) 박승희부터 (24) 한상용까지 6명이 해당한다. 이 시기 대학생 자살자의 출신 대학은 모두 지방대였다. 자살자의 출신 대학이 수도권 대학에서 비수도권의 지방대학으로 옮겨간 것인데 이것은 민족해방계 학생운동의 중심축이 지방으로 이전된 것과 궤를 같이 한다. 4명 모두 민족해방계에 속하며 손석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3명은 고등학생운동 출신이다.

1991년 당시 지방대학들은 민족해방계 운동이 곧 학생운동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학생운동 내 민주민주 계열이 크게 뿌리를 내리지 못한 가운데 민족해방 계열의 압도적 우위가 관철되고 있었다. 그중에서도 5·18 항쟁의 진원지였던 전남대는 1990년 전대협 의장 송갑석을 배출하면서 민족해방 계열 학생운동의 중심으로 부상했다. 이 시기 자살자들의 출신 대학은 민족해방 계열 학생운동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확대된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네 번째, 1995년 12월에서 1997년 초까지 14개월의 기간으로 (25) 장현구부터 (30) 한상근 6명이 해당한다. 여수수산대생 오염권을 제외하고는 5명이 모두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산하 용인성남대학생총련맹(용성총련) 소속 대학생이었으며 황혜인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민족해방계로 파악된다.

이상을 정리하면, 학생운동의 이념적 분화가 시작된 1986년 이후 민족해방계가 많아지면서 1988년부터는 19명 중에 최덕수, 박래진, 황혜

인 3명을 제외하고 16명이 민족해방계에 속했다. 최덕수와 박래전은 앞서 언급했듯이 CA계열이었고 박선영은 “비주사·NL 그룹이나 반NL 진영 중의 한 갈래가 아닐까 추정”¹¹⁾되고 있으며, 황혜인은 유서에 “노동해방 노동자가 되는 그날까지”라고 적힌 것으로 보아 PD계열로 추정된다. 이동수, 박혜정, 박태영은 학생운동 정파를 추정할 만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

대학생 자살자 대부분이 NL계열에 속하는 것은 NL 학생운동이 집단 기억을 통해 집합적 정체성을 강화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NL의 반제국주의 통일전선은 민족의 집단기억과 정체성에 근거해 ‘저항행동의 틀’을 구성한다. 민족을 통해 과거의 고통과 저항의 집단적 기억을 붙잡아 뭉으로써 정체성을 강화하는 것이다(이창언 2011, 14-46).¹²⁾

11) 박선영은 1985년 5·3 인천항쟁과 1986년 9월에서 11월 사이의 신민당 직선제 추진 대회에 참여하기도 했는데 ‘직선제 개헌론’과 ‘제헌의회론’을 다 같이 비판했던 것으로 보아 그가 활동한 정파조직은 민족해방 진영의 개량주의적 개헌 투쟁을 비판하고 나선 비주사 민족해방 그룹이나, 반민족해방 진영 중의 한 갈래로 추정되고 있다(박선영·남태현열사추모사업회, <http://chusa.nazzang.net>).

12) 이창언은 NL의 민족주의가 “민족주의는 ‘민족 구성원들의 단합,’ 민족통일국가라는 ‘상상된 공동체’로의 귀속감, 타 공동체가 갖지 못하는 문화적 예외주의를 형성함으로써 과거의 고통과 저항의 집단적 기억을 붙잡아 둘 수 있고, “민족해방(NL) 계열은 기존의 가치관과 관행으로서의 사회적 정신 내지 사회의식(societal mentality)에 근거해 ‘저항행동의 틀’을 구성하는 한편 정체성 지향적 전략(identity oriented strategy)을 구사하는 과정을 통해 운동사회의 동의를 확장해 나갈 수 있었다”고 했다.

“식민의 기억으로부터 파생된 ‘세습적 희생자’ 의식을 매개로 민족경계를 재구성”(이창언 2011, 11)하는 NL 학생운동에서 저항적 자살은 집합적 정체성을 강화시키는 과거의 고통이자 희생이며 동시에 집단적 기억을 영구화하는 ‘의례’의 원천으로 작용한 셈이다.

1997년 한상근을 마지막으로 대학생의 저항적 자살은 더 이상 출현하지 않았으며 이 즈음부터 한총련을 중심으로 하는 학생운동은 급속한 속도로 쇠퇴해갔다. 1996년 8월 연세대 한총련 사태와 1997년 6월 한양대에서 개최된 한총련 5기 출범식에서 일어났던 ‘프락치 오인 치사 사건’으로 여러 학생운동그룹들과 상당수 학교들이 탈퇴하면서 한총련은 세력이 급격히 약화됐다.

6. 결론

1997년까지 대학생의 저항적 자살을 통시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신자살이 전체 66.7%를 차지했고 자살장소는 76.7%가 ‘학교’였다. 그밖에 개인 공간에서 자살한 경우는 대체로 자살방법도 분신이나 투신에 비해 고립적 성격이 강한 목매이 대부분이었다. 자살방법과 자살장소 모두 공개적인 성격이 강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는 것은 대학생 자살이 개인적 차원을 넘어 공적인 성격이 분명했음을 말해준다. 또 공개적인 자살방법 중에서도 분신이 많은 것은 1970년의 전태일

분신이 1980년에 와서 저항행위의 상징으로 수용됐기 때문이다.

둘째, 자살의 주요 목적은 지배세력을 규탄하는 것에서 점차 동료 대학생들의 투쟁을 촉구하는 것으로 바뀌어 갔다. 1970년대까지는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세력을 ‘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았으며 집권세력을 적으로 규정해 정권 타도를 주장한 것은 1980년 5·18 이후부터다. 1980년대 초중반의 자살메시지는 지배세력을 규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으며 점차 저항세력의 투쟁을 촉구하는 것으로 바뀌어 갔다. 자살목적의 이 같은 변화는 1986년 건대항쟁 직후 진성일의 자살에서 처음으로 나타나 1988년 조국통일운동 때부터 본격화됐다. 또 1987년 민주화로 민주 대 반민주 전선이 약화되면서 저항적 자살은 학생운동의 이념적 후퇴 또는 상대적 침체를 막고 운동을 재활성화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셋째, 자살의 연쇄성은 추모의례 과정에서 저항적 자살자가 열사 호명을 통해 투쟁의 도덕적 상징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시작됐다. 앞선 자살이 하나의 실천행위로 간주됐고, 그 실천의 연장·계승을 위한 다른 실천이 자살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넷째, 대학생의 저항적 자살은 NL계가 다수를 차지했으며 NL계 학생운동의 중심 이동에 따라 자살의 주요 출현장소도 달라졌다. 대학생 자살자 대부분이 NL계열에 속하는 것은 NL 학생운동이 집단기억을 통해 집합적 정체성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NL 학생운동에서 저항적 자살은 집합적 정체성을 강화시키는 과거의 고통이자 희생이며 동시에 집단적 기억을 영구화하는 ‘의례’의 원천으로 작용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학생운동에서 대학생 자살의 변곡점은 5·18 항

쟁, 1987년 민주화, 그리고 한총련의 쇠퇴라고 할 수 있다. 5·18 항쟁으로 지배세력에 대한 적대가 강화되면서 자살이 출현하기 시작했고, 6월 항쟁 이후 민주 대 반민주의 적대전선이 약화된 뒤 저항세력의 또 다른 궤기를 촉구하면서 연쇄적인 자살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총련 약화와 함께 궤기를 촉구할 대상(학생운동세력)이 사라지면서 대학생의 저항적 자살도 소멸해 갔다. 다시 말해 5·18 애도에서 출발한 대학생들의 연쇄적 자살은 지배세력의 적대성이 약화된 뒤 다시금 적대를 강화시키는 효과를 낳았으나 결국 실패로 돌아간 채 학생운동의 약화와 함께 자살 자체도 소멸해 갔다고 할 수 있다. ~~다~~

참고문헌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2003. “국가보안법 적용상에서 나타난 인권 실태.”
2003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0. 『한국민주화운동사 3』. 돌베개.
- _____. 2006. 『지역민주화운동사편찬을 위한 기초조사사업 최종보고서』.
- 박승희열사기념사업회. 2008. “박승희열사 17주기 교양자료.”
- 박형민. 2010. 『자살, 차악의 선택』. 이학사.
- 서울대 민주열사 추모사업위원회. 1984. 『산자여 따르라: 4인 열사 추모집』. 거름.
- 알튀세르, 루이(Louis Althusser). 1991. 『아미앵에서의 주장』. 김동수 역. 숲.
- 양돌규. 2006. “민주주의 이행기 고등학생운동의 전개과정과 성격에 관한 연구.”

성공회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월간말. 1986/03/25. “근로조건 개선 외치며 또 분신자살.” 『월간말』 제5호. 67-68.
- 이창언. 2011.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과 정치조직 논쟁.” 한국민주주의연구소. 『기억과 전망』 24호. 6-52.
- _____. 2009. “분신자살의 구조와 메커니즘 연구.” 한국민주주의연구소. 『기억과 전망』 21호. 14-179.
- 천정환. 2013. “열사의 정치학과 그 전환: 2000년대 노동자의 죽음을 중심으로.” 문화과학사. 『문화과학』 2003년 6월호. 87-138.
- 한국고등학생기독교운동 서울연맹. 1991.06.01. <마당>.

- “[길을찾아서] 최덕수·박래전의 잇단 분신 …… ‘광주를 잊지 말라’ / 박정기.” 『한겨레신문』 2012/02/19.
- “분신 배후조종’ 비난 유서.” 『한겨레신문』 1991/05/11.
- “20년 전 고딩들은 명동성당에서 몽쳤다.” 『오마이뉴스』 2007/12/04.
- “20대 영안실 옥상서 분신.” 『한겨레신문』 1991/05/23.
- “강제연행 제적생 분신기도.” 『한겨레신문』 1996/12/07.
- “경원대 ‘임시휴업’ 강경 치달아.” 『한겨레신문』 1996/04/25.
- “광주교대생 분신자살 정원동결 철회등 개혁요구.” 『한겨레신문』 1993/11/11.
- “군사독재 물러가시오 유서.” 『한겨레신문』 1991/05/19.
- “대학재학 중 입대 군인1명 분신자살.” 『한겨레신문』 1991/08/20.
- “문익환 목사등 연행.” 『경향신문』 1985/10/23.
- “비명에 간 젊은 죽음 진상 밝혀져야.” 『한겨레신문』 1988/11/01.
- “서울교대생 분신 사망.” 『한겨레신문』 1989/04/09.
- “서울대 ‘민주화의 길’을 함께 걷기: 한인섭 교수.” 『대학신문』 2009/10/14.
- “자민투·민민투 용공 조직 규정 전면수사.” 『경향신문』 1986/05/05.

“학생 또 분신자살 기도.” 『한겨레』 1988/05/19.

“학생운동 대학제적생 우울증 시달리다 자살.” 『동아일보』 1995/12/15.

“한양대 휴학생 투신자살.” 『한겨레』 1990/11/09.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추모연대) www.yolsa.org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Open Archives www.kdemo.or.kr

박선영·남태현열사추모사업회 <http://chusa.nazzang.net>

박선영남태현열사추모사업회 <http://m.cafe.daum.net>

박승희열사기념사업회 <http://cafe.daum.net/cosmos91>

Abstract

A Study on Student's Suicides as Protests in Korean Student Movements

Lim, Mi-Ri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character and the progress of student's suicides as protests in Korean Student Movements. There were 30 suicides from 1975 to 1997. The greater part of them committed suicides in their affiliated colleges and burned oneself to death. This means student suicides were not by depression but by protests.

The main purposes of suicides were changed from denouncing the ruling power to calling for insurgents's uprising. After June Democratic Uprising, the domino-type suicides were appeared in relation with the weakened antagonism against the ruling power. And the student's suicides had started to dissipate according to declining of the NL(National Liberation) line student movement leadership due to the incident of Yonse University in 1996 and the incident of Hanyang University in 1997.

The student's suicide as protests increased according to reinforcement of antagonism against the ruling power after 5·18 Uprising. And the domino-type suicides of students were due to that purpose. But the weakness of student movement resulted in the extinction of student's suicides.

■ **Keyword:** Student Movement, The Suicides as Protests, the NL(National Liberation) Line Student Movement, 5·18 Uprising, June Democratic Uprising.

투고 : 2016/3/31 심사 : 2016/4/25 확정 : 2016/5/20